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대체불가 대한민국

보도시점 2026. 11. 12.(목) 13:00 배포 2026. 11. 12.(목) 13:00

방한 외국인 관광객 2,000만 명 돌파, 대한민국 관광의 새 역사

- 1천만 명 달성(2012년) 이후 14년 만, '대체불가 관광대국' 도약 본격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이하 문체부)는 11월 12일(목),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 수가 사상 최초로 2,000만 명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12년에 1,000만 명을 달성한 이후 14년 만에 거둔 성과다. 특히 방한 관광객 연간 2,000만 명 달성은 한국 관광이 한 차원 새로운 단계로 도약했음을 뜻하는 성과로, 연말까지 남은 기간 갱신되는 수치 역시 모두 새로운 기록으로 남게 된다.

* 11월 11일까지의 외국인 관광객 수(잠정 1,997만 명)와 올해 일평균 관광객 수(잠정 6만 4천 명) 고려

방한 관광의 성장세는 관광 소비 증가 및 지역 입국 확대로도 이어졌다. 올해 9월까지 외국인의 관광 분야 소비액(15조 9,416억 원)은 지난해 같은 기간(10조 7,940억 원) 대비 47.7% 급증했고, 비수도권 공항과 항만으로 입국한 방한객도 각각 올해 9월 누적 324만 명(전체의 19.0%), 158만 명(전체의 9.2%)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7.4%, 14.5% 늘었다.

* 김해·제주·청주·대구 등, ** 부산·제주·서귀포·여수·군산 등

'케이-컬처'가 이끌고, 범부처가 뒷받침하고, 국민이 함께 만든 방한 관광 2천만 명 시대

연초 이후 중동 정세 불안과 고유가 등 여러 변수에도, 방한 관광은 가파른 성장세를 이어왔다. '케이-컬처'의 세계적 확산, 대통령 직속 국가관광전략회의를 구심점으로 하는 범부처 협조 체계 확립, 따뜻한 미소와 친절로 세계 각국의 관광객들을 맞이한 우리 국민의 성숙한 환대 정신이 어우러진 결과다.

‘케이-컬처’의 영향력은 확대되고 있다. 2025년 말 기준으로, 자국에서 한류 콘텐츠가 인기 있다는 응답률은 전통적인 인기 분야였던 음악(54%), 드라마(51%), 영화(49%) 외에도 음식(55%), 미용(53%)에서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류가 한국 제품·서비스 구매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응답률도 65%로 최근 3년간 꾸준히 늘어나면서(58% → 64% → 65%), ‘케이-컬처’ 확산은 잠재적인 방한 관광(서비스) 수요로 연결되는 모양새다.

* 「2026 해외한류실태조사」 결과: 해외 30개국 한류 콘텐츠 경험자 2만 7천 명 대상

정부 관계 부처 간 협력도 방한 관광 성장을 뒷받침했다. 대통령 주재 제11차 국가관광전략회의(2026. 2. 25.)를 기점으로 범부처 협업 체계가 가동되면서 출입국 편의 증진, 지방공항 국제선 기능 확충, 불공정 가격(바가지요금) 제재 강화 등 방한 관광 활성화 조치를 다각도로 시행했다.

정부의 제도적 지원에 더해, 시민들의 자발적 환대와 친절이 한국 여행의 이미지를 끌어올렸다. 지난 6월 인천공항 편의점에서 관광객이 실수로 떨어뜨린 무선이어폰을 찾아주기 위해 상품 진열대를 해체하고 먼지가 가득한 틈을 맨손으로 헤집어 찾아준 편의점 직원*의 사례는 ‘한국인의 친절함’에 대한 미담으로 누리소통망(SNS)에서 크게 화제가 되었다.

* 인천국제공항공사 특별유공포상 수여(2026. 7. 15.)

최휘영 장관은 “외국인 관광객 2천만 명 돌파는 ‘대체 불가 관광대국’으로 도약하는 출발점”이라며, “오늘부터 12월까지 전대미문의 성과를 국민들과 적극 공유해 자부심을 높이고, 방한 관광객 3천만 명 시대 달성과 4천만 명 시대를 향한 수용 태세를 철저히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체부는 방한 관광 2천만 명 시대를 맞이해 공식 기념행사, 업계 간담회, 언론 기고, <케이-공감> 등 정부 보유 매체 광고, 2천만 명 시대 입국자 대상 지방 국제 공항 환대 행사, 코리아그랜드세일 연계 행사, 누리소통망(SNS) 릴레이 홍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다. 특히, 2천만 명 돌파 당일인 12일에는 문체부 김대현 제2차관이 직접 인천국제공항을 찾아 입국자를 환영할 계획이다.

담당 부서	관광정책실 국제관광정책과	책임자	과장	김진희 (044-203-2871)
		담당자	사무관	윤홍민 (044-203-2865)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대체불가 대한민국 OPEN 자유이용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